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6차 정기 총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For a Synodal Church:

Communion, Participation, and Mission

의안집 (Instrumentum Laboris)



천주교 춘천교구

천주교 춘천교구 시노드 대의원은
다음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교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대의원회 의장

김주영 시몬 주교 (서명)

대의원회 대표자

성직자 대표	배종호 토마스 신부	(서명)
수도자 대표	이희운 스텔라 수녀	(서명)
평신도 대표	임용순 그레고리오	(서명)
교구 책임자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	(서명)

2022년 6월 6일
천주교 춘천교구 시노드 대의원회

서문

1. 춘천교구 공동체는 2021년 10월 17일, 제16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교구단계 시노드 개막미사를 봉헌하며, 본격적인 함께 걷기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하느님 백성은 이 시노드의 여정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숙고하고자 하였다: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교구, 본당)가 ‘어떻게 쇄신되기를’ 바라시는가? 그리고 그 쇄신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2.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비추어 이번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성령께서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경청하는 것이다.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에 바라시는 바를 ‘함께’ 식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교구의 모든 하느님 백성의 참여와 협조가 요청되었다.

3. 우리 공동체의 시노드 여정인 본 교구단계는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크게 3단계의 회기로 구성되었다. 제1회기는 ‘경청단계’이다. 이번 시노드의 주제인 ‘친교, 참여, 사명’에 관한 모든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개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성찰하였다. 제2회기인 ‘식별단계’는 경청 단계에서 들은 내용들 가운데 ‘무엇이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 교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공동 식별하고자 하였다. 제3회기는 ‘종합단계’로서 앞선 두 단계를 통해 경청하고 식별한 내용을 교구 공동체의 삶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종합하는 과정이었다. 본 의안집을 작성함, 혹은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렴된 의견이 교구의 모든 하느님 백성과 본당 공동체의 삶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4. 본 의안집은 ‘예비 문서’와 ‘편람’(vademeccum)에 포함된 답변, 의견과 학술적 제안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우리는 숙고와 대화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3부로 정리하였다. [제1부] ‘친교’에서는 시노드 정신의 기반을 이루는 친교와 관련하여 여정의 동반자로서의 인식과 이에 대한 실천적 차원에서의 발언과 경청에 대해 성찰했다. [제2부] ‘참여’에서는 하느님 백성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살기 위한 요소로서 거행, 권위와 참여 그리고 식별 및 결정 관련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제3부] ‘사명’에서는 이 시노드의 여정이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았다. 또한 공동의 책임성을 인식하며 교회가 사회와 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했다.

5. 우리 앞에 놓인 이 시간에 무엇보다 **‘의식의 변화’라는 귀중한 결과**를 간직하고자

한다.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비추어 성찰하는 것이다. 하느님 백성의 봉사자로서 사제들의 의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동시에 모든 하느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인식하고, 교회 생활에 공동의 책임감을 가진 주체로서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다. 시노드의 정신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하고 그 나아갈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나 영적 사목적 식별의 길을 가는 주교와 함께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하나로 모인(*convenire in unum*) 것이 이미 은총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찰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찾는 지속적인 ‘함께 걷는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말씀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오늘날의 사목적 도전 과제들을 성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현실에 적합한 방법론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여정을 이어가며 ‘시노드 정신의 토착화’를 위한 발걸음을 계속 내디딜 것이다.

제1부 친교

여정의 동반자, 경청 그리고 발언

6. 교회와 사회 안에서 모든 하느님 백성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이다. 그러므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동반자적 의식이 요청된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친교는 사회적 통념상의 용어와는 의미가 다르다. 친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신비이다. 이 친교의 일치는 ‘우리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공동의 체험을 나누며 함께 걸어 나아가는 것’으로서 이것이 시노드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평등한 존엄성의 바탕 안에서 소외됨 없이 저마다 제 길에서, 그러나 함께 가야 한다.

우리의 현실

7.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친교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의식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의 친교는 단체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단체 활동이 어려운 계층, 특히 노인이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생업의 이유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이들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삶의 자리 주변에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소외된 이들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시노드 과정 중에 오갔던 수많은 목소리를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시노드 과정에서 찾은 우리를 향한 새신의 부르짖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잃어버린 그들의 자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 또 이 시대에 새로운 문제를 안고 사는 노인과 젊은이 그리고 쉬는 교우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연대와 친교를 맺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있다.

8. 공동체의 친교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첫 번째는 노인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조직은 노인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결국 노인을 무시하는 사회의 단점을 체험하게 됩니다”¹⁾라고 말한 바 있다. 특별히 지난해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교구 공동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된 교구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서 여전히 활동에 제약이 있는 계층들이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앞에서 우리 공동체 또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뼈아픈 지적에 직면해 있다. **노인들이 공동체와 친교를 이루거나 자신들의 필요를 개선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 공동체의 현실은 친교적 새신에 있어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9. 많은 이들이 소외된 두 번째 대상이 젊은이라고 보았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청년을 떠난 것이다.”²⁾라는 보편교회의 지적은 우리 공동체에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시노드 과정 안에서 들었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이것이 우리 공통의 현실임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청소년 시기에 마주하고 있는 부족한 신앙 교육과 냉담자를 양산하고 있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활환경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 전에, 청년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청소년들의 부족한 신앙 교육을 방관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소홀했던 교회가 이미 그들을 떠난 것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또 ‘빛바랜 의무’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들에게 뿌려진 신앙의 씨앗은 썩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으나, 교회의 무관심은 결국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마치 신기루처럼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만들어 버렸다.

위기적 상황들

10.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신앙 활동의 제약은 공동체의 친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기존의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신앙기반이 약했던 이들이나 친교의 끈이 긴밀히 닿지 않은 이들은 공동체로 다시 돌

1)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2015년 3월 4일 수요 일반 알현 중.

2) 참조: 세계주교시노드 제15차 정기총회 최종 보고서: ‘젊은이, 성소, 식별’ 중.

아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팬데믹의 위기를 어렵사리 극복하고 소중한 신앙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친교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다시 그 친교로 돌아오도록 공동체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경청과 발언: 시노드적 태도 (affectus synodalis)

11. 교회의 생활 방식이자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으로서의 시노드 정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린 정신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대화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은 시노드 과정에서 성찰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났다.

방해 요소들

12. 우선 **현대 사회에 팽배한 개인주의의 경향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이는 경청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개별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신앙생활도 공동체와 분리된 채 개인주의화, 지역주의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렇게 개인주의가 가져오는 분열의 위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상을 향한 복음화의 사명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잊혀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됨과 평화가 필요한 장소와 상황에서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은 더욱 큰 분열을 조장한다.

13. 무시와 무관심의 일상화된 방관은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죽음의 행진이다. 우리는 이 위험한 행진을 멈추어야 한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편견 그리고 선입견은 많은 이들에게 대화의 장벽과 발언의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자신의 틀에 박혀 있는 이웃에 대한 시선은 우리의 시력을 온전치 못하게 하여 이웃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을 친교의 대상, 여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루카 10,29)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의 질문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성직자 중심주의

14. 사목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성직자나 수도자 또는 단체 대표들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거나 편중된 자세는 성직자 중심주의로 이어지고, 결국 경청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순명’이라는 교회의 아름

다운 덕행이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오해되는 순간 이는 잔혹한 무기가 되고 친교의 걸림돌로 자리한다. **평신도와 수도자의 삶을 배려하지 않는 사목자들의 일방적인 사목 방식은 친교와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주도권 논쟁의 장벽

15.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성직자의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성직자 중심주의는 분명 우리가 쇠신해야 할 병폐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새로운 이들을 경계하고 이방인으로 만드는 배타적인 분위기의 공동체 모습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세속적 친교 방식들은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하느님 나라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버려야 할 문화’이다.** 여전히 존재하는 평신도들 개개인의 독선적 태도로 인한 장벽 때문에 입게 되는 아픔과 상처는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한 발언과 경청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관료적이고 획일화된 분위기 안에서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그 기회가 집중되어 있음은 우리에게 더욱 배려와 존중의 태도 및 이를 위한 쇠신이 요구되는 방증이다. 이에 대한 변화와 쇠신 없이 친교적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변화와 쇠신을 거부하는 모습은 오히려 공동체를 박물관 안에 두려는 자세와 같은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문턱은 잘못된 신앙이나 신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반하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들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높아야 하지만, 우리 이웃의 휠체어가 들어올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16.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단순히 성직자와 평신도의 (또는 수도자의) 주도권 다툼으로 이해하고 그 방법론을 민주주의에서 찾는 것은 결국 ‘하느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할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친교를 가로막는 더 높고 막강한 장벽을 쌓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찾고 따라야 하는 근본적이고 궁극적 원리는 ‘여론’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어야 한다. 서로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 성직자든 수도자든 평신도이든 - 모든 ‘하느님 백성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공동 식별’의 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직자는 수도자와 평신도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수도자와 평신도 또한 성직자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를 존중해야 한다. 이처럼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 동반자적 존재로서 서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노드 정신이 실현되는 친교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노드 정신의 중요한 핵심 요소인 ‘상호 경청’은 곧 ‘상호 존중’을 의미한다.

쇠신을 향한 노력: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17. 품위의 동등성과 직무의 다양성을 기초로 한 ‘하느님 백성’의 교회론적 바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더구나 직무적 다양성에 따르는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데에 매우 제한적이다. ‘동반자’와 ‘친교’라는 용어 안에는 ‘타인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내포되어 있으나,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지내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아비판만이 아니라, 동반자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전히 존재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장벽은 그 신원의 구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원 안에서도 존재한다. 더불어 다양한 개인이 친교를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과 공동체 간의 장벽,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장벽에 대한 아픔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므로, 우리는 이 장벽을 허무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제2부 참여

거행, 권위와 참여 그리고 식별과 결정

18. 함께 걸어가기 위한 시노드적 교회의 여정은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는 데에 기반을 둘 때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바라시는 바를 함께 식별하고 결정함으로써 모든 하느님 백성이 참여적이며 공동의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분화된 유기적 책임성을 지닌 존재로서 구성원 개인은 개별적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 말씀을 식별하고, 공동체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적 신앙 감각으로 승화하여 시노드 정신을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

1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한데 모여 바치는 기도의 중요성을 형제들과의 친교, 용서와 화해에 관한 말씀들 안에서 가르쳐 주셨다(마태 18장 참조). 즉, 함께 일치를 이루고 친교를 이룬다는 것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성찰한 모습은 대부분 신앙생활이 개인적 신심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활동을 통한 공동체적 친교는 이루지만 이는 개인의 신심생활과는 분리되어 있다.

직면한 어려움

20. 실제 평신도들의 상당수가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성찰하며 개인주의화된 경향을 발견하고, 영적인 삶보다 세속적 삶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반성한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로서의 능동적 전례 참여에 대해, 이를 위한 사목자들의 노력이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만, 평신도들 스스로 지적인 개인주의적 경향의 신앙 태도는 때로 한계로 작용한다. ‘열심한 평신도가 열심한 목자를 만든다’는 말처럼 평신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사목자가 열정을 지닐 토대를 마련하는데,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과연 평신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례를 비롯한 신심생활에 참여하며, 하느님 말씀을 삶의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현실이다.

신앙의 개인주의화와 세속화의 물결

21. 평신도의 신앙생활 측면에서, 개인의 성향과 신심 혹은 안일한 태도로 소공동체 교류 없이 (주일)미사에만 참례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 소홀하다 보니,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앎의 범위가 한정되었고, 이는 엘리트주의로 흘러 열심한 ‘몇몇 평신도’가 특권의식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잘못된 신심임에도 ‘열심하다’는 이유로 종종 추종세력을 만들거나 사목자 또는 교회의 교도권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한다. 많은 평신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함은 결국 언제나 하느님 말씀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고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야 하는 교회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노드적 결정 과정의 이해부족

22. 시노드적 결정과정은 모든 사람의 참여와 몇몇 사람들의 식별과 자문 및 협력에 의해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decision-making)’과 목자의 고유한 권위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decision-taking)’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는 이러한 시노드적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

우선, 모든 본당에 ‘사목 평의회’가 존재하지만, 이 ‘몇몇 사람’에 해당하는 평의회의 구성원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공동체의 결정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는 ‘평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목자가 결정하고 있음은 고무할 만한 표상이다. 그러나 그 평의회 구성원의 활동 내역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소통에는 미흡하여 일반 평신도들은 분리되고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므로 ‘몇몇 사람’들의 역할에 해당하는 평의회 구성원들이 조금 더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며, 특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그 결정사항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설명해주는 ‘소통하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독단적인 결정이 많았던 과거의 결정구조에 대한 반발과 ‘민주화’의 열망이 높은 시대상황이 반영되어, 사목자의 경청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

러나, 교회의 구성적 요소인 시노드 정신이 민주주의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 절차’를 표방한 ‘다수결 등의 방식’으로 설정하려는 유혹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과 정신을 사회의 방식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세속화의 영향이기도 하다. 교회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합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것은 ‘여론’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례를 비롯한 공동체적 신심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성경과 성전의 가르침을 익히는 태도가 요청된다.

참여의 한계

23. 또한 우리 공동체가 지닌 어려움 중 하나는 책임감을 회피하려는 유혹이다. 개인화의 분위기가 팽배하여 책임이 따르는 자리는 서로 맡지 않으려는 회피의식이 강한 상황에서는 다른 자문기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고 하여도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즉,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문기구의 부족함과 그 구성원에 해당하는 ‘몇몇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정작 ‘몇몇 사람’으로 선발되거나 책임을 맡는 것은 회피한다. 사목자들이 ‘자문을 구하려 해도, 그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는 점은 **능동적 참여의식에 대해 평신도 스스로도 성찰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그러므로 자문기구 위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대화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새신을 향하여: 사목자의 관심과 노력

24.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목자의 안내와 격려가 공동체 신앙생활에 많은 힘이 됨은 분명하기에 목자들의 올바른 사목적 태도에 대한 평신도의 바람이 크다. **우선 평신도들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영성적으로 귀감이 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특히 강론 준비에 대한 기대와 요청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대해 성직자들 스스로도 기도와 전례 거행에 있어 자율성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깊은 공감을 이루고 있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한다. 실제로 교회의 위대한 전례 전통은, 사목자들로 하여금 신자들이 행동과 말에 부합하는 내적 준비를 갖추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활기가 넘치는 전례 거행이라 하여도 일종의 예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신자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찬 신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참여의 커다란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특히 거행 방식(ars celebrandi)과 능동적 참여(actuosa participatio)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성찬례에 관한 최고의 교리 교육은 잘 거행된 성찬례 자체”³⁾**라고 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3) 교황 베네딕토 16세, 사랑의 성사, 64항.

한다.

또한 대다수의 하느님 백성 스스로 기도와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동적이고 의무적으로 임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목자들의 관심과 평신도들의 참여가 함께 고양되어야 한다. 특히 말씀을 읽고, 교회의 가르침을 익히며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복음적 삶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시노드적 공론장의 마련

25. 하느님 백성의 친교적 결정을 이루기 위한 만남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제도적 쇄신에 대한 갈망이 크다. 이는 각종 평의회를 비롯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기구들에 대한 쇄신은 물론,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도 사목의 ‘유기적 공동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상설기구 마련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진다. 특별히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의 문화를 체험한 우리는, 다양한 비대면 모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기회 삼아 대면과 비대면의 병행구조 안에서 새로운 창조적 공론장의 형태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이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시노드 정신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시노드적 자리는 어떤 특정한 단계의 차원에서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계에 걸쳐 - 본당의 여러 단계를 비롯하여 지구와 교구에 이르기까지 - 충만히 마련되어야 한다.**

제3부 사명

사명 안에서의 공동 책임성과 이를 위한 양성

26. 시노드의 여정은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위한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경청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아무도 이 복음의 기쁨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살아 있는 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조적 개념에 머무르거나 공허한 말들의 나열이 아니라,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한 성찰과 쇄신이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의 복음화 사명 (ad intra)

27. 교회 안에서 복음화 사명을 사제와 수도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직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역량과 열정을 조직화할

수 있는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수행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회 안의 개별 공동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당의 울타리를 넘어선 타본당과의 교류나 지역사회와의 대화는 더욱더 제한적이다. 특정한 행사의 경우에는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지만, 대화와 사목적 연대와 일치의 차원에서의 교류는 미미하여 각 본당 공동체들이 섬처럼 떨어져 있음은 우리가 다시금 살펴야 할 모습이다. “하나이고 보편된 교회는 이 지역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교회들로부터 존재한다(in quibus [ecclesiis particularibus] et ex quibus una et unica Ecclesia catholica exsistit)”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성찰 안에서, 본당 공동체들의 교계적 친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우리 공동체는 그 지리적 범위가 넓고 지역별 특성의 편차가 심하므로 이를 염두에 둔 시노드 정신의 토착화를 위한 자발적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는 6개의 지구로 분할되어 있고, 각 지구별 그리고 같은 지구 내에서도 본당별 규모와 지역에 따른 특색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시노드 정신의 실현을 위한 사목적 성찰이 이러한 특색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노드 정신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갖되, 그 방법론에 있어 획일화된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사목적 창조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로써 공동체의 모든 하느님 백성이 다른 본당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지구와 교구의 공동 사목과도 유기적 친교를 이루는 형태와 방식으로 복음화의 능동적 주역이 되는 것이다.

28.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배려’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사명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의 사명을 하느님 백성의 의무로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교회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의 실천이 아직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돌봄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의 사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를 향한 교회의 사명 (ad extra)

29. 우리 공동체에는 인권, 노동, 환경과 같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 수행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는 필수적이라는 긍정적 주장과 지나친 이념적인 행동과 편향된 모습은 정치색을 띠 수 있어 경계해야 하며 사회문제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에 더 충실한 것이 좋다는 부정적인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얘기하기에 앞서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먼저 합당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교회헌장, 23항.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

30.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이주민들⁵⁾을 위한 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현세의 온갖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이주민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마저도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환대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더 넓은 ‘우리’를 건설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한 체험과 양성

31.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는 시노드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적 차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필수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시노드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양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아직 우리 공동체의 현실은 시노드 정신의 내용과 각자가 수행해야 할 사명에 대해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해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노드 정신에 대한 소중한 체험들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다. 애써 숙고한 의견과 제안이 아무런 설명 없이 거절되거나 무시되었을 때의 부정적 체험과, 자신의 체험이 공동체의 논의와 식별을 거쳐 현실화되었을 때 가졌던 소속감의 긍정적 체험은 모두 우리가 쇄신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 **시노드 정신이 단순한 신학적 개념으로 남지 않고, 생활 방식이자 활동 방식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노드의 여정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체험의 공유를 통해 이해와 양성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

32. 하느님 백성은 모두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구성원의 고유하고 다양한 은사가 교회의 다양한 자리에서, 그러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의 사제직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며 참여하는 시노드 정신이 구현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는 구성원 각자가 소외됨이 없이 다양한 만남과 대화의 자리에 참여하여 서로 배우고 나눔으로써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만남과 대화의 자리는 단순한 ‘일상적 대화’ 또는 ‘활동적 대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신앙 감각을 말씀 안에서 기억하고 간직하며, 서로의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신앙적 대화’의 자리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5) 교구 관할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9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있다. 이 ‘신앙적 대화’의 자리에서 ‘각자’ 동시에 ‘모두’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적 식별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모두에게 저마다 제 길에서 수행하도록 주어진 복음화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것이다.

결론: 후속 조치들

33. 함께 가는 여정의 시노드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교구에서 처음으로 평신도, 수도자와 사제들이 함께 모여 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노드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교구의 대화 소통의 구조 변화를 위해 각 지구에서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의 회의를 통해 논의한다. 이는 하느님 백성이 원했던 친교적 결정을 위한 제도적 쇄신에 대한 원의 때문이다.** 또한 함께 가는 여정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평신도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특별히 시노드적 결정 과정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따라 몇 가지의 구체적 과제를 부여한다.

34. 우선 **함께 가는 여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성직자 중심주의에 대하여 교구 사목 평의회와 사제 평의회에서 논의하고 추후 전체 사제회의에서 교구 성직자들의 쇄신과 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성직자 스스로 모든 하느님 백성과의 ‘동행의 기술’을 익히도록 부름받고 있음을 우선 인식한다. 그리고 ‘상호 경청’과 ‘상호 존중’은 시노드 정신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본당과 교구 안에서 이를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한다. 무엇보다 시노드적 태도를 갖추도록 모든 사제들에게 과제를 준다.

35. 앞서 언급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 공동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된 교구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어려운 상황에 맞는 사목적 배려에 대해서 교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아울러 저출산율의 원인을 교회 내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부재 이유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교회의 방안 마련에 대하여 교구는 우선적 당면 과제로 삼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더불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시노드 정신을 교육하여 ‘함께 가는 여정’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교구는 교리교육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현안인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위해 교구는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어야 할 것이다.

경청에 있어 사람의 말에 대한 경청 이전에 하느님 말씀에 대한 경청이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교구의 ‘말씀살기’ 계획을 꾸준히 진행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말씀살기와 품기’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는 온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이어간다.

〈〈의견종합〉〉

제1주제: 친교

지구별 (평신도) 의견

질문1. 여정의 동반자: 교회와 사회 안에서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다수 의견〉

- 본당공동체 내에서 대체적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에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 긍정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성직자 중심주의의 모습에 대한 지적이 있다. 요즘은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톨릭은 성직자 중심으로, 몇몇 단체의 간부들만의 움직임으로 함께 걸어간다고 할 수 없다. 절반도 안 되는 판공성사, 20% 내외의 미사참례(코로나 이전에 미사참례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신자증가율의 둔화(연간 0.1%에 불과함) 모든 통계적인 자료의 지표가 하향으로 가고 있다.
- 친교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신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세례 받은 지 얼마 안된 신자들이나 소극적 성향의 신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다. 제단체 활동이나 소공동체 모임 등을 통해 친교가 실현되어 온 만큼 이러한 활동이 없던 이들이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자리한다. 그러므로 활동 중이고 공동체에서 역할을 맡은 이들이 활동 중이지 않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단체 또는 소공동체 모임을 통한 공동체 내부의 친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과, 또한 단체와 모임 안에서 기도와 봉사의 조화로운 활동을 통해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 미사 참례를 통해 친교를 이루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며, 미사 전후로 이러한 친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그리고 노인들이 대표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자리한다. 세상 안에서 독거노인을 대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대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현실과 그들이 친교를 이루거나 자신들의 필요를 개진할 충분한 여유가 없는 우리 공동체의 현실은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 코로나 19의 영향이 적지 않음 또한 드러났다. 신앙기반이 약했던 이들, 건강이나 생업으로 지장을 받은 이들이 장기간 소외된 채로 방치되고, 그 중 기존에 친교의 끈이 긴밀히 닿지 않은 이들은 이후에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친교를 실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제도적 노력보다 관심, 존중, 배려 등의 ‘시노드적 태도’가 요청된다는 성찰이다. 또한, 대다수의 해결책으로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 제안하는 것이, 앞서 언급된 현실에 대한 성찰에도 연결되는 것처럼 단체 활동(1인 1단체 가입)을 통한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목자의 노력과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더불어 요청된다는 의견이다.

〈소수 의견〉

- 교회의 파별로 인해 ‘함께 걸어가자’ 못한 경우도 있다.
- 공동체는 노력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 같다.
- 대부분 신자들이 공동체 참여를 꺼리며, 내가 아니더라도 봉사자들이 하겠지 하는 생각이 팽배하다. 따라서 신자들은 많지만 봉사할 사람이 적다
- 함께 걸어가는 길은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는 등 개인 스스로 노력해야 가능하다
- 끼리끼리 공동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배려하고 이해하는 경우보다 자신과 친밀이 중요한 듯하다.
-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지만 단체에서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단체 안에서조차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나, 간혹 사제, 수도자, 단체장들의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인해 상처받고 냉담하는 사람도 있다.
- 단체장이 해야 할 업무를 다른 단체장에 미루는 경우가 있다.
- 작은 충돌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같이 걸어가는 이들이 있고, 사회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또한 있다. 모두가 공존한다.

**질문2. 경청: 시노드적 태도로서
편견 없이 열린 정신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요청됩니다.**

〈다수 의견〉

- 시노드 정신을 실현하는 근본적 태도로서의 ‘경청’에 있어서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를 위한 노력이 개인적, 공동체적 쇄신을 위한 첫째 과제임이 분명하다. 주로 본당의 성직자, 수도자와 친교적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만 수렴이 되고, 소수의 의견이 경청되지 않음은 분명 우리 공동체가 깊이있게 성찰해야할 문제이다. 특별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와 무관심으로 대하는 자세는 개별적 쇄신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반성되어야 할 태도이다.
-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는 대부분 개인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의견 표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 사목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성직자나 수도자, 또는 단체의

대표들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거나 편중된 자세는 성직자 중심주의로 이어지고, 결국 경청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성직자 중심주의만의 문제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 개개인의 독선적 태도도 분명히 발견되므로, 모두가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 단체들을 통한 의견은 공동체에 비교적 반영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소외된 이들, 단체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자리가 마련되지 않음은 우리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소수 의견 - 경청의 결림돌〉

-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몇몇 사람을 규합하여 분파를 만드는 경우.
- 주임 사제가 성당 직원을 주종관계로 간주하여 자신과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바로 해고하거나 명분을 쌓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해고.
-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전달하지만, 어려운 사정을 경청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상황.
- 굶어 부스럼을 만드니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마음.
- 지나치게 편파적인 정치 성향.
- 사제나 수도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
- 대화의 방법이 미숙.
- 경청 후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
- 경청은 하지만 원래 하던 방식을 고수하는 태도(다른 시각에 관대하지 못함).
- 공동체 의식 부족.
- 원칙을 벗어난 경우.

질문3. 발언: 모든 이가 자유와 진리와 사랑으로 발언하도록 초대됩니다.

〈다수 의견〉

-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지만, 자유로운 발언에 있어서는 개별적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해 충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다. 단체의 대표를 맡거나, 평소에 발언하기를 좋아하는 몇몇 개인에 의해서만 발언이 이루어질 뿐, 아직 발언에 있어서의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과제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내부에서 충분한 발언과 경청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한 개인에 편중되어 있음은 우리에게

게 더욱더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 발언은 이후에 따르게 될 선입견에 대한 두려움과 관료적이고 획일화된 집단적 분위기가 주로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앞서 언급한 ‘경청’의 태도가 부족한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연결된다.
- 또한, 사목자들의 권위를 대함에 있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신앙인의 덕행인 ‘순명’에 대한 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비추어짐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에 대해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경청’의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발언’을 위한 기초적 전제는 ‘경청’이다.

〈소수 의견〉

- 회합이나 모임 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의 의견이 대체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나의 의견과 다른 타인의 생각과 시선이 발언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또한 몇몇 사람만의 발언으로 대부분은 몇몇 의견에 따라갈 따름인 것 같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모임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으며, 의견만 내 놓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해야한다.
- 발언을 돕는 것은 경청과 공감으로 제시된 의견을 지지해주는 것이며, 발언자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않고 공동적으로 함께 책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반하여 방해하는 요소로는 무조건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 사목회의나 단체 내에서 혐의를 해서 정한 내용이 일부 사제 또는 회장에 의해서 무산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의지를 상실한다. 이 경우 발언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제나 사목위원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 너무 많은 정보에 의해 피로감이 높은 사회라 ‘나라도 조용히 지내자.’는 생각에 의사 표현 하지 않게 된다. 침묵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 단체장 임명이 사제의 일방적 임명으로 이루어지므로 공동체의 의견이 사제에게 전달되지 않고, 묵살되는 경우 있다. 오히려 사제의 뜻이므로 따르라고 공동체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 신자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제시되는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 반영되는 구조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성직자 의견

- ‘정말로 함께 걷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류별로 만나고 의견이 모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동안 자연스레 형성돼 온 모습인 거 같다. 우리 인식 안에 알게 모르게 학교별 구분, 선배 신부들의 응집력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자연스레 형성된 분위

기에서, 후배로서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형편이었다. 소통되는 면도 있었으나 간혹 선배들을 바라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점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제단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동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봐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여겨오지 않았나 싶다. 교구의 중견에 해당하는 내가 사제 모임을 가져 봐도 발언에 있어 부담되는 면이 있거나 주눅 드는 면 있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들이 사제단 안에서 의견 개진과 소통에 있어서 방해요인이 된다고 본다. 더구나 누군가가 개진하는 의견에 뒷담화 등을 한다면 많이 부담될 것이다.

- 근본적으로 함께 걷는다는 게 목적이 같아야 가능해진다고 본다. 현재는 바라보는 곳이 서로 다르다고 보여진다. 정평위나 환경위 같이 바라보는 곳이 같으면 함께 걷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르면 술을 먹거나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등의 현상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한다. 이것은 참된 교회적 친교는 아니다.

- 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며 교구 의식을 많이 심어주려고 하는데, 교구 안에서의 하나됨(공유화나 사제의 삶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신학생 안에서의 친교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내가 죽으면 물어줄 사람이라는 표현도 써가며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외됨 없는 친교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받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강조해 왔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게 동반자로서의 삶이라고 본다.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니, 그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고 자기 역할 이상을 해 왔던 신학생들이 지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며 쉬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모르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고 격려였던 것 같다. 위로와 격려가 없다면 동반자로서의 삶은 금방 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친교를 이루어야 하는가?'는 질문에서 '왜'라는 말에 집중한다면, 친교에 대해 논의한다고 해도 뭔가 크게 바뀔 거 같지는 않다. 결국 남의 짐을 많이 짊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할 거 같다. 동반자, 친교라는 말 속에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같이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적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아비판이 다가 아니라, 동반자적 의식을 더 가질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친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본다. 인간적 부족함을 그 신부의 핸디캡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친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라고 본다. 무의식 중에 개인을 바라보는 편견이 친교를 이루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단지 그의 약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친교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 친교이고 영성의 목표이며 친교의 정의가 사명에 참여하는 건데, '인류의 복음화라는 목표에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철저히 해야겠다 싶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친교적 삶이 아닌가 싶다.

- '공동생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수도자 의견

- 현재 교회의 구조는 대부분 어르신, 약자들,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보살핌 받기 어려운 어린이들. 아픈 이들이 주체로 활동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자연적으로 소외되는 구조이다.
- 사목자의 열린 태도에 따른 의견수렴은 구성원들 모두에게 긴장감을 덜어주어 구성원의 참여, 의견 제시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사목자의 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인들조차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코로나의 상황으로 소외 아닌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때에도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장 이외에 대부분의 일반 신자들은 소외되어 있는 현실이었다. 또한 단체장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의 소리가 공동체에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 사실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평신도가 어떠한 소리를 내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 내 소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경청'일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각자 자기의 소리만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내 소리를 들어주기만을 바라기보다, 내가 내는 소리가 공동체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자신은 타인의 소리를 듣는 것인지에 대한 식별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 말하는 사람은 늘 따로 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모습이다.
- 성직자 중심의 태도는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직자들처럼 교회의 가르침을 근거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있는가? 그러한 의견을 내고 있는가?라는 것에 의문이 든다. 성직자의 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 자신의 태도와 지향하는 방향이 그릇된 경우도 적지 않다.

청년 의견

1.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입니까?

-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공간
- 바쁜 일상 속의 쉼터, 그늘. (대다수)
- 휴식처 혹은 인간관계, 신앙은 더 이상 청년들에게 신앙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지게 되는 관계와 동행하는 신앙의 의미라고 생각함

- 위로이자 믿음 (바쁘게 살면서 지칠 때가 많은데 누군가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기도로 마음껏 할 수 있고, 들어주는 이가 있고 지켜주는 이가 있다 생각하니 내 편이 생길 거 같은 위안감을 받음)
- 많은 흔들림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 신앙은 의무라 생각이 들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 삶의 지혜
-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것
- 신앙을 지키고자하는 의미가 빛바래져 가고 있다.
- 의무감
- 있으면서도 없는것. 신기루

2. 본당에서 만나는 다양한 연령대의 신자들과 잘 어울리는 편입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인적인 성격차이 문제도 있는 듯하다. 먼저 인사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당에서 하고 있는 ‘명찰달기’와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
-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본당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다양한 연령층과의 교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다.
- 청년회에서의 봉성체가정 방문 봉사도 도움이 되는듯하다.
- 나름대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긴 하다. 지나가며 많이 뵈는 분들도 있고 워낙 어렸을때부터 성당을 다니니까 웬만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얼굴은 잘 안다. 그리고 교사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과도 친밀하고 아이들의 부모님과도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낀다. 다만, 더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것이 같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인듯하다.
- 잘 어울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려움은 존재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신자들 사이에 분명히 세대차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었기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또래는 많은데 딱히 다른 연령대와 교류할 시간이 없다.

3. 다양한 성격과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는 편입니까?

-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편이다. 각자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접점을 찾는다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세상 사람들이 나와 비슷할 수는 있어도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말과 행동을 다 존중한다. 선을 넘지 않는 한, 내가 그들을 이해하는 만큼 그들도 나를 이해해준다는 전제하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당연히 다른 사람이기에 다른 생각과 다양한 성격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큰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그 청년을 하나의 나와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니다. 여기서 다름은 틀림을 말하지 않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는 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 조심스럽다. 새로운 사람과는 어렵기에 나를 드러내기 힘들다. 이해하려고 말을 조심하려 한다.
- 들어보려고 노력하나 나와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둔다.
- 내가 여유가 있으면 이해하려하나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선을 긋는다.
-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두는 편,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만 하는 편이다.
- 최대한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약간의 선을 긋는 편이다.
- 둘 다 존중하지만 나와 맞지 않다면 가까이하지 않는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4. 편견을 가지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 경험에 따라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도 선부르게 다가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고유성을 인정해야한다.
-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지만 객관에도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이끈다는 생각보다 같이 걷는 사람이라 생각해야한다.
- 개인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편견을 가지지 말자라는 자세부터 편견을 가질 대상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대화가 꼭 필요하다. 단순한 대화가 아닌 진지하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

5. 모든 청년들이 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충분히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청년회 홍보를 통해 나의 자유 선택을 통해 여 단체에 가입할 수 있게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
- 사회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 또는 힐링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면 신앙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생겨서 자주 오고 싶을 것 같다.
- 배척과 외로움이 없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자매이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 보좌신부님이나 친구와 같이 나를 반겨주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

- 청년들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도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이끌어 주어야 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예수님을 아는 방법, 신앙심을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래도 청년들은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끌어주다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교회가 청년을 이끌기 보다는 함께해야 한다. 미사 안에 전례도 중요하지만 기도 안에 나눔 일상생활 공유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끌고, 청년들이 스스로 신앙을 가지는 이유를 찾게 해줘야 한다
- 남자 청년들에게 신학교 가라고 말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찾는 거라고 하면서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제2주제: 참여

지구별 (평신도) 의견

질문1. 거행: ‘함께 걷기’는 공동체가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는 데에 기반을 둘 때만 가능합니다.

- 본당공동체 내에서 대체적으로는 기도와 전례에 생활과 의사결정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에 긍정적 의견이었다. 다만, 별도의 의견으로는 이 시노드 과정에 응답한 대부분이 교회생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기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고, 오히려 기도와 전례생활에 소홀한 이들은, 이 시노드 과정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단체 활동을 통해 기도와 전례생활에 참여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개인적인 신심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었다. 친교가 대부분 제단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 친교의 차원과 신심생활의 차원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실제 평신도들의 의견 중에 상당수가 신앙생활의 개인주의화와 영적인 삶보다 세속적 삶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 이와 관련한 성직자, 수도자들의 의견 중에서도 능동적 전례 참여에 대해, 이를 위한 사목자들의 노력이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서 평신도들 스스로 지적한 개인주의적 경향의 신앙태도도 때로 한계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모든 부분을 단순히 성직자 또는 수도자의 문제라고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열심한 평신도가 열심한 목자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당수의 성직자, 수도자들이 평신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례를 비롯한 신심생활에 참여하는지’ 묻고 싶어한다.
- 또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안내와 격려가 신앙생활에 많은 힘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에 사목자들의 올바른 사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우선 대다수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영성적으로 귀감이 되는 모습을 요청하며, 특히 강론준비에 대한 기대와 요청이 많았다. 이에 대해 성직자들 스스로도 기도와 전례 거행에 있어 자율성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깊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
- 더불어 평신도의 신앙생활 측면에서, 개인의 성향과 신심으로 인하여 바쁘다는 이유, 혹은 안일한 태도로 소공동체 교류 없이 (주일)미사에만 참례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성경을 읽는 것조차 소홀하다 보니, 성경이나 신학의 얕은 범위가 한정된 엘리트주의로 흘러, 열심한 ‘몇몇’의 특권의식도 배제할 수 없다. 종종 잘못된 신심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하다’는 이유로 추종세력을 만들고, 사목자나 교회의 교도권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다른 많은 수의 평신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요컨대, 대다수의 하느님 백성들 스스로, 기도와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수동적이고 의무적으로 임하고 있는 현실임에는 부정할 수 없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평신도는 한정적이므로, 사목자들의 관심과 평신도들의 참여가 함께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말씀 묵상에 대한 관심에 비해 현실적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질문2. 권위와 참여: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참여적이고
공동 책임을 갖는 교회입니다.**

〈다수 의견〉

- 시노드적 결정과정은 모든 사람의 참여와 몇몇 사람들의 식별과 자문 및 협력에 의해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decision-making)’과 목자의 고유한 권위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decision-taking)’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 교구 각 공동체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시노드적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는 못한 상황이다. 우선, 모든 본당 사목구에 ‘사목평의회’가 존재하지만, 이 ‘몇몇 사람’에 해당하는 평의회의 구성원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나마 공동체의 결정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는 ‘평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목자가 결정하고 있음은 고무할 만하다. 다만, 평의회 구성원의 임명과 해임 자체를 사목자의 독단적인 권위에 의한 경우가 많다. 하여, 평의회의 구성원이 결국 사목자의 ‘이미 내려진’ 결정에 따라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
- 또한, 시노드적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이 드러나는 또다른 현실은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가 반영하여, 평의회를 비롯한 자문기구들의 결정권 요구이다. ‘결정을 만드는 것’과 ‘결정을 내리는 것’ 사이의 적절한 조화와 요구되는 시노드적 결정과정에 있어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해당하는 자문권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 분명 교회에서의 시노드적 기구는 ‘다만 건의 투표 votum tantum consultivum’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자문의 권한을 사회법의 정신에 따라서만 이해한다면 부적절하다. 즉, 구성원들이 가지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다양성 안에서, ‘공동체 전체가 하느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사목적 결정을 내리고자 기도하고 경청하고 분석하고 대화하고 식별하며 조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목자의 관점에서, 자문을 하는 구성원의 관점에서 이러한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다시말해, 목자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결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고, 이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며, 동시에 공동체 각 구성원들은 하느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이 되도록 식별하며 조언하면서도 ‘성품에 의해 주어지는 목자의 고유한 권위’도 인정하는 상호협력의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사목평의회’나 ‘재무평의회’, 즉 기존에 설정된 ‘평의회’ 구성원의 활동 내역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소통에는 미흡하며, 평신도 사이에서도 분리되고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몇몇 사람’들의 역할에 해당하는 평의회 구성원들이 조금 더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며, 특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그 결정사항 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설명해주는 ‘소통하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기대하고 있다.

- 사목자의 관점에서도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본당 사목구 내에 ‘사목평의회’와 ‘재무평의회’를 제외한 기타 자문기구가 부족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동의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앞서 언급한 두 평의회의 구성원조차 서로 하지 않으려는 회피의식이 강한 상황에서 다른 자문기구를 제도적으로는 마련한다고 하여도 그 구성원으로 얼마나 참여할 지는 의문이다. 즉,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문기구가 부족하고, 그 구성원에 해당하는 ‘몇몇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정작 ‘몇몇 사람’으로 선발되는 것, 책임을 맡는 것은 회피한다. 사목자들의 고충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문을 구하려 해도, 그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이라는 점은 평신도 스스로도 능동적 참여의식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이에 관한 평신도들의 의견에서도 자문 기구 위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모든 사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건의함 또는 상설기구)의 마련에 대한 희망이 절대 다수에 해당할 정도로 그 바람이 많았다. 특히, 단체들을 통한 의견은 공동체에 비교적 반영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소외된 이들, 단체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자리가 마련되지 않음은 우리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각 본당 사목구의 현실에 맞추어, 사목자들의 경청하려는 태도와 더불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서 평신도들 스스로도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특별히 ‘몇몇 사람’에 해당하는 직무를 맡은 이들이 더욱 ‘모든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요청된다.

〈소수 의견〉

- 대부분의 안건이 사목평의회와 논의 후 결정을 하고 있으며, 제단체의 의견 수렴 후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절차가 그저 형식적으로만 느껴지기도 한다. 그로 인해 사목평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사목자와 상의 후 결정되어 총구 역회를 통해 전 신자들에게 전파되고 있다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 때로는 사목평의회와 재무평의회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고 전체적인 아우름이 약하다고 느껴진다. 신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특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식적인 신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바탕에 두고 투명하게 의사결

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결정된 내용을 월 또는 분기별로 게시판에 활용하는 등 공지를 함으로써 ‘소통하는 교회’의 면모가 보였으면 좋겠다.

**질문3. 식별과 결정: 시노드적 삶은 모두 함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기반을 둔 식별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수 의견〉

- ‘식별과 결정’의 과정에 있어 대부분 사목회 회합이나 제단체 회합, 소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수의 신자들은 성직자와 수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결정을 할 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 수렴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평신도 개인들과 소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수의 의견을 소홀히 하거나 지적하기보다, 잘 들어 주고 모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단 성직자와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너무 큰 ‘몇몇 사람’이 주도하거나, 이들이 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제단체장 구성의 변화와 정기적인 교육으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봉사하는 사목 개선이 요구된다.
- 독단적인 결정이 많았던 과거의 결정구조에 대한 반발과 ‘민주화’의 열망이 높은 시대상황이 반영하여, 사목자의 경청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적 요소인 시노드 정신이 반드시 ‘민주주의’와 동일시되어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교회는 오히려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구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 절차’를 표방한 ‘다수결 등의 방식’으로 설정하려는 유혹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과 정신을 사회의 방식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세속화’의 경향이기도 하다.
- 사목자들의 시각에서는, 물론 독단적 결정구조는 지양해야 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때로 사목자들의 식별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예외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를테면, 공동체의 의견으로 제시가 되었지만, 결국 그 의견을 주도하는 몇몇 사람에 의한 것이라던가, 또는 제시된 의견이 교회의 가르침이나 지침과는 맞지 않는 경우이다. ‘민주적’이라는 명목 하에 몇몇 사람들의 주도로 결정권을 독점하려는 경향도 드물지만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사목자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공동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 사목자들도, 평신도들도 현실성, 효율성, 편의성에만 기반을 둔 세속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회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공동체에 바라시는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식별이 필요한데, 인간적인 가치에만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평신도들 스스로도 말씀 안에 살아가며,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교육의 기회에 필요함을 자각하고 있다.

- 궁극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한다. 사목자 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서로를 존중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에만 기반한 세속적 시각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를 기다려 주는 자세를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다.

〈소수 의견〉

- 결정을 할 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 수렴은 무의미하다. 신자 개인들과 소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수의 의견을 소홀히 하거나 지적하기보다, 잘 들어 주고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현실적이고 편의성에 기반을 둔 세속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신자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읽기(통독), 성서백주간, 혹은 교육이나 피정 등도 필요하다. 특히 영상매체를 활용해 식별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 활성화에 평신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 신자들의 감소와 개인주의, 혹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본당의 제한된 봉사 인원으로 인해 신자들은 여러 개의 직무를 맡게 되거나 너무나 많은 책임과 역할의 요구로 봉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가급적 1회 임기로 끝내고 연임을 줄이며 순환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직자 의견

- 본당 사목평의회는 본당신부를 도와주고 자문한다는 역할로 규정에 나와 있다. 결정을 본당신부가 하는데, 본당신부가 독선적으로 나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시노드 정신과 맞지 않다. 신자들에게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교구 사제평의회를 본다면, 전에는 20명이 넘기도 했다. 즉 모두가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평의회 개편을 통해 한 두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분위기였다가 이제는 한 사람씩 모두 발언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게 긍정적인 면이다.
- 함께 걷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무언가 봉헌해야 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한다.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기다리지 못하면 함께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 참여의 본질을 전례, 복음화 사업, 식별로 보고, 이 세 가지를 참여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 교회가 조직화 되다 보니 임무와 역할이 고착화되어 반성해보자는 취지가 아닌가 한다. 즉, ‘전례에 대해 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미사, 강론에 대해 얼마나 성의 있게 준비, 집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생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열심한 신자가 열심한 사제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신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례 참여하고 있는

가? 신자들의 능동적 전례 참여를 위해 사목자로서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교무금 등을 봉헌하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식별에 대해서도 신자들 전체에게 묻고, 사목평의회가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이 참여와 연관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기다리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 직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자문도 해 본다.

- 신부와 신자의 관계도 그렇지만, 신부와 주교의 관계도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어떤 문제를 사제들을 대상으로 공론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해결하면 일이 더 깔끔하게 끝나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 안전에 따라 사목자의 결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평의회를 거치거나 전 신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도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 또한 식별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 사목자와 평신도 간의 갈등이 빚어져서 그 내용을 보면, 평신도들이 민주적인 절차만을 요구하면서도 그 방향은 교회의 또는 복음의 정신과는 맞지 않거나, 그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목자의 개입으로 다른 결정으로 이끌어 가면, 평신도들은 사목자의 독단이라고 비난하고 갈등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사목자의 상처도 발생하게 된다. 사목자의 무조건적 독단과 권위주의는 당연히 사라져야하는 폐단이지만, 많은 이들을 대하는 만큼 자연스레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되는 사목자의 입장에서 다수를 향한 교회적 선의를 고려하는 사목자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아쉬움이 더욱 크다.
- 최소한 평의회 (사목평의회, 재무평의회)를 통해서도 사목자로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묻고자 하지만 식별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아직 익숙치 않은 듯하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사목자의 명확한 판단만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다. 오히려 경청을 위한 기다림을 우유부단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 자문기구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청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마련되었을 때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의문이 있다. 자문기구를 조직하여도 그 기구에 참여하는 봉사자 인원을 맡는 것은 회피한다. 상설건의협의 설치 시노드 여정 중에 많은 본당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예전에 이미 설치되었다가 무용지물로 남은 실례가 있기에 회의적이기도 하다.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참여의식이 우선 아닐까 생각한다.
- 신자들의 많은 관심이 사목적인 결정이 아니라 본당의 외적인 부분들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성당에 무엇을 설치하고 어떻게 장식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들은 많이 내지만, 정작 ‘말씀살기’를 어떻게 하고 ‘찬미받으소서’의 여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적으로 신자들의 관심과 대화의 주제가 신앙적인 사명에 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도자 의견

- 소수의 평신도들은 열심히 평일미사와 전례에 참여하는 등 성화 직무를 수행하려 하고 있으니, 그 외에 주일미사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큰 관심이 없고, 교회 활동에도 소극적이다.
- 사목자와 평신도 단체장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여, 그 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결정 후에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까지도 공유할 수 있을 때 모든 신자가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사목자의 모습에 있어 성사집행은 충실하지만 사목에 있어서는 결정과 추진에 있어 미흡한 모습이 발생하기도 한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는 존재들이지만, 사제로서의 본분에 충실함에도 사목에서의 미흡함으로 교우들과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 본당에서 성직자와 수도자 간의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건에 따라 수도자가 책임과 직무도 지킬 수 있는 사안은 사제와의 공동 협의가 중요하다. 수도자들 스스로도 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작 성직자와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벽에 막히는 경우가 빈번해지면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책임에 대한 회피로 이어진다.
- 본당 내 대표적 자문기구인 두 평의회 (사목평의회와 재무평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사목평의회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지만, 재무평의회는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재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본당 사목자의 독단적인 관리 운영이 심각한 것 같다.
- 의사결정의 많은 경우, 사목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신자들의 동의를 구한다. 동의를 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사목자의 열린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신자들의 수동적인 태도에 아쉬움이 많다. 때로 신자들 스스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 본당에서 단체 간의 장벽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본당의 의사결정에 때로 큰 장애물이 된다. 모든 단체가 어우러져 본당을 활성화하고 책임감을 지닐 수 있어야 하는데, 끼리끼리의 친교적 모임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

청년 의견

1. 주일 미사와 청년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체로 주일 미사에는 잘 참여하고 있다.
- 주일미사와 청년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는 못하는 이유로는 청년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열정이 식고 무기력할 뿐 아니라, 재미가 없고 반복되는 만남의 패턴에서 오는 지루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과 같이 생사와 관련되거나

피로감 등 개인사정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편하게 미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일 정도로 성당에서 주어진 봉사 역할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밖에도 본당에 청년회가 없어 청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본당도 있다.

2. 주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알차게 의미 있게 주일을 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 쉼의 시간이다.
- 영적, 육적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 청년들은 신자로서 주일은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날임을 인지하고 있어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한 주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하느님과 만나며,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해주신 빛의 길을 계속 걷기 위해 각오를 새로이 다잡는 날로 다가온다고 한다.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의 달란트를 봉헌하며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청년도 있다.

3.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봉사하고픈 마음이 있으신가요?

- 달란트(능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마음, 공감, 경청, 묵묵함,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전하고 노력하는 성실함, 성세함, 관찰력, 파악력, 설득력, 배려, 음악과 게임 등 활동적인 것, 편견 없는 모습, 남들보다 앞서서 기꺼이 하겠다는 행동과 마음가짐,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며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킴, 위기 대처, 노래, 교육 등등. 그러나 스스로의 달란트를 모르거나 잘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봉사하겠다는 의지는 강하다.
- 대부분의 청년들은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봉사하고픈 마음과 의향을 지니고 있고 또 넘치고 있다. 다른 한편, 지치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봉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청년들도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달란트로 함부로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청년도 있다.
- 아직 못 찾았는데, 봉사는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봉사를 당연히 생각하는 것에 회의감이 든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 결국 나오는 사람만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되니 불평불만이 생겨나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다.

4. 교회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본당에서 꼭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세요.

- 청년들이 본당에서 소외되지 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 주어야

한다.

- 청년 모임이 친목을 위한 모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주가 되었으면 한다.
- 재미 속에 함께하는 신앙생활. 일단 재미있어야 한다. 그 안에 교리가 함께 있어 재미 속에서 신앙심이 깊어지는 느낌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다.
- 회식이나 술자리보다는 교회의 가르침(소외된 이들 살피기, 자연보호활동...)을 함께 하자.
-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 만들기
- 청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며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청년이 없다면 청년회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회 활성을 위한 본당 사제와 신자들의 꾸준한 관심,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 활동과 선교(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과 학습의 장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본당에서 청년을 단순히 일꾼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열린 분위기 안에서 청년들이 주가 되어 본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본당 단체 등 많은 분들의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한다. 코로나 19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해 가고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젊은 청년층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또한 학업, 취업 등으로 외적 심리적 압박을 지닌 채 생활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잡힌 5-60대 어르신들의 기대에 청년들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록 신앙생활을 점점 멀리하기도 하지만, 나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관대함 속에서 청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 '바쁘다'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5.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 의견을 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교회 공동체와 청년들 간에 명백한 벽이 존재하고, 교회의 큰 일을 결정할 때, 청년들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는다.
- 확실히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 교회 공동체가 수직적인 느낌이 들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기는 하지만,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맞지만, 청년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제3주제: 사명

지구별 (평신도) 의견

질문1. 사명 안에서의 공동 책임: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봉사이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습니다.

〈다수 의견〉

-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참여하고는 있으나 그 참여의 열정과 정도는 개인과 본당에 따라서 다르다.
- 병환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꾸준한 기도와 돌봄을 통해, 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혼자된 자매를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선교 실천 노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당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교 노력은 부족하고, 주로 사제나 수도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 많은 신자의 경우, 세례 성사를 받을 때의 감동과 기쁨이 그 이후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기억되고 유지되지 못하고 망각되고 상실된 채, 주일미사를 지키는 것으로 신자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교회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 인권, 노동, 환경과 같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 수행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는 필수적이라는 긍정적 주장과 지나친 이념적인 행동과 편향된 모습은 정치색을 띠 수 있어 경계해야 하며 사회문제보다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일치에 더 충실하는 것이 좋다는 부정적인 주장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먼저 합당한 처우를 제공하는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의 사명 수행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잘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의지가 있는 교우들의 뜻을 실천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실패 파악은 어렵지만 ‘신자가 아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건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요약하면 교회의 사명 수행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하고, 복음화 사명을 사제와 수도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노력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역량과 열정을 조직화할 수 있는 본당과 교구 차원에서의 복음 선교의 수행 방법을 시노드의 과정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수 의견〉

- 공소에서도 독립적이고 작은 교회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당에 의존적이기보다 전례와 예산에 있어 자립하고, 교구의 공문을 본당에처럼 발송했으면 한다.
- 참여에 있어 신자들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방법과 정도의 차이가 있다. 노인 어르신이 많은 경우 직접적인 발언이나 활동은 어렵지만, 나뭇 전례와 기도 모임을 통한 후원자의 역할을 통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한다.
- 이 내용과 관련하여, 예비신자 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물론, 교리 중심이기는 하지만 복음은 기쁨이라는 예비자 교육의 중요성과 교회의 공동체성을 교육시킴으로써 세례 받고난 이후에도 단체 가입을 통한 지속적인 활동과, 더불어 대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이들의 지속적 신앙교육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시노드 정신의 핵심은 함께 하는 것, 함께 걷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이제는 우리 본당만 잘 되고 우리 본당 신자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질문2.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 대화는 인내심을 요구하면서도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수 의견〉

-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화는 필수적이다. 공동체 안에서의 의견 차이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주로 중재적 역할을 맡게 되는 사제와 수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얼마나 당사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균형된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 대체로 사제나 수도자의 중재 역할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편이긴 하지만, 때로는 사제나 수도자의 권위적이고 균형감을 잃은 일방적인 태도에 의해서 한쪽 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향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읽고 신앙체험을 나누는 ‘신앙적 대화’에 목말라하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본당에 따라서 미사 후 차나눔 기회나 성당 카페에서의 차나눔을 통한 ‘친교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앙적 대화’는 이 수준을 넘어선다. 본당 교우들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모여 나누는 신앙적 대화는 아직은 희망사항이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면 모임이

극히 제한되다 보니 최소한의 친교를 위한 미사 후 차나눔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당의 울타리를 넘어선 타본당과의 교류나 지역사회와의 대화는 더욱더 제한적이다. 성전건축 기금 모금을 위한 방문이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바자회를 통하여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타본당과의 교류나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타 본당에서 개발한 좋은 프로그램이나 성공한 사목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본당으로 전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본당과 본당이 섬처럼 떨어져 있고 제각각 독립적으로 아무런 교류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같은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느님 백성으로서 연대와 일치를 위해서도 본당과 본당 간의 대화와 정보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소수 의견〉

- 개신교 타종파와의 대화에 있어 한계를 느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어려움인데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지식의 한계이므로 이를 위한 교육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둘째는 그들의 태도로써, 대화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릇된 지식으로 고수한다.
- 교회가 사회와 연대하고 참여하는 것은 좋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편으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왜 참여해야하는지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특히 정치적인 해석 등등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것도 있다.
-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들끼리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신부님과 수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여유 속에서 따뜻한 태도를 통해 가능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질문3. 시노달리타스를 통한 양성: 시노달리타스 영성은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의 양성을 위한 교육 원리이자, 시노달리타스 자체는 교회의 구성적 차원입니다.

〈다수 의견〉

-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적 차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필수적 가치이다. 우리 교구는 명도학당의 시노달리타스 강의 개설과 주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아직은 만족스러운 정도로 이해되고 있지는 못하다.
- 경청하고 대화하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은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평신도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제안을 드리려는 주된 대상이 사제와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 정신이 더욱 높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제와 수도자는 평신도에 비해서 사목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평신도를 그만큼 더 수용적인 자세로 경청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요청된다.

- 평신도가 애써 의견을 내고 제안을 했지만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거절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 다시는 어떤 제안도 하고 싶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성당 오르막길에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사목회의 논의를 거쳐 채택되었을 때 무척 기쁘고 보람을 느꼈다는 사례처럼, 평신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검토과정을 거쳐 채택되는 열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부의 경우이지만 사제가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본당의 일부 봉사자들이 끼리끼리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몇몇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서 실망하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없이 성당을 등지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다.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구성원의 고유하고 다양한 달란트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며 참여하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이 구현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소외됨이 없이 다양한 만남과 대화의 자리에 참여하여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을 배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교회에 봉사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 교회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교의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의 발생으로 더욱 그런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서 이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교회공동체가 마련해야 할 대화의 자리는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의 자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말씀 안에서 기억하고 간직하는 ‘신앙적 대화’의 자리까지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신앙적 대화’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재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더불어 얻게 될 것이다.

〈소수 의견〉

- 시노드 정신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교회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코로나의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앞으로의 양성과 실천에 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 특별히 사제들의 시노드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시노드 정신이

실현되려면 사제들의 배려와 쇄신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과정을 통한 변화를 기대한다.

성직자 의견

- 사명 안에서의 공동책임 부분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합니까?”라는 질문에서, 사람들이 ‘왜 참여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사명감을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 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명을 말하기 이전에 하느님 체험을 어떻게 하고, 하느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사명을 의무라는 말로 설득할 수 없는 단어임을 얘기하고 싶다. 이사가 예언자에게 하느님께서 사명을 내리면서, ‘저들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전하라고 하시는데, 예언자는 ‘언제까지 제가 전해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은 성찰해 볼 대목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해봄도 좋을 것 같다.
- 사명이 어떤 건지 식별을 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이 ‘하느님 뜻인가 내 뜻인가?’라는 등이다. 예를 들어, 가난을 보여주기 위해 멸절한 지분을 교체한다면, 이게 과연 하느님의 뜻인가, 즉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만하다.
- 시노드 정신은 신자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다. 평신도들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성직자들이 얼마나 들어주려고 하는지와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직자, 수도자들이 바뀌어야 사명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의정부 교구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실제로 신자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 또한 ‘현재의 시노달리타스가 신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 크게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본다. 첫 번째는 이 시노드의 과정에서, ‘여기가 교회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회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있는데, ‘성직자 끼리 하는 것이 과연 시노드 정신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번 질문의 핵심이 아닌가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결국 시노드의 영성이라고 언급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즉, 복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본다.
- 이번 질문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본다. 사제, 수도자들은 자기가 무얼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으나, 평신도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즉 정체성, 사명이 뭔지 근본을 모르는 것이라 본다. 그동안 평신도들을 계속 교육해 왔으나,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수행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고, 명도학당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성직자, 수도자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신자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성직자, 수도자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신자들은 열심히 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번 질문에서 교우들에게 질문하기 이전에 성직자인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야 한다고 본다. 성직자들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오면서 평신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신부들은 정말 사명의 정신을 살고 있는가? 평신도들은 현재 나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가난한 사람과 대화하고 개방적으로 그들과 있으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자. 결국, 교회 안에서 대화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 교회 사람을 잘 양성하고 있는가라는 점이 질문의 내용이라고 이해한다.

- 교회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면서도 의외로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자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늘 우리 안의 사정을 바라보는 데에 급급했던 것 같다. 우선으로 본당을 운영해야 했고, 어려운 이웃도 신자들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또 그에 대한 나눔도 빈첸시오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빈첸시오회가 없는 본당도 있다. 지금껏 사회적으로 약한 고리였고, 이제는 본당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복지라는 것이 교구 단위의 대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아서, 본당 사목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 써야 하고,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실질적 예로, 춘천 장학리 쪽에 ‘연탄 은행’을 운영하는 감리 교회 목사가 있다. 지역 사회에 중요한 역할 수행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 경청과 대화를 위해 한 달 동안 새성전 입당 준비하며 재단체 간담회를 해서 새성전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에 전례복 바뀌달라, 비품을 사달라는 답변이 주로 들어와서 아쉬웠다. 연령이 되는 데도 상위 단체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가 되었다. 규모 유지 힘들었던 꾸리아를 축소시키고, 빈첸시오회가 나눠져 있었던 것을 합쳤다. 이렇게 일차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신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는 하는데 힘들다.
- 본당에서 지금 사명과 관련해서 생각이 들은 것은, 본당 단체 간에 연령이나 계층을 포함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평협인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평협 대표가 사목 회에도 참석은 하지만 늘 듣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평협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협 단체가 신심활동 단체도 있지만 연령대 별로 친교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 연령대 안에서 본당에 건의 내용이나 바라는 바가 소통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아쉽다.
- 공동 합의, 대화라는 것은 참 좋지만, 많은 경우에 사제들과 신자들 모두에게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 보다는 자기 얘기만 하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기가 쉽다. 공동적으로 합의를 이룬다는 게 어려운 것 같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외면하는 모습들을 쉽게 본다. 코로나 문제로 단체든 전체 차원이든 침체된 상황이어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시노드 의견을 모을 때 본인이 직접 통제는 하지 않지만 자주

강조하고, 사목위원들만이라도 써서 내라고 하는 상황을 접하며,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공소 시절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교리와 성서에 대한 맛을 들어서 봉사하는 모습들이 부족한 것 같다. 그것을 우선으로 개선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등의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어려운 것 같다. 지금까지는 시노드 의견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체제가 있지만, 거의 일부만 하고 대부분의 신자는 미사만 겨우 참례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시간의 여유를 두고 석달 동안 시노드를 진행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했지만, 좀더 폭을 넓혀서 긴 시간을 두고 가르치고, 교리교육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인식을 더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에게 사명으로 맡겨진 것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에는 수동적인 것 같다.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 그동안 없어 왔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식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있다. 주위의 시선도 있고, 그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은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동적인 마음을 능동적으로 바꿔 나가는 방법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시노드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 개개인의 신앙 안에서 있어서 삶의 태도의 문제가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노드 과정을 하면서 교구, 본당, 교회 공동체에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정작 개개인 스스로 자신의 신앙,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찰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교구와 본당에서 해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본인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소중히 하라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다우려면 스스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스스로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개개인의 삶에서 나부터 변화되어야 하고, 쇄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시노드를 하면서 교회와 성직자가 들어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교우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말을 잘 듣고 대화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는 바라지만 각자는 얼마큼 경청하고 들으려 하는가 하는 반성과 서로를 들어주려는 노력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꼈다.
- 이번에 사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면서 신자들에게 고마웠던 부분은, 신자들이 선의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스스로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으로는 본당 공동체 차원에서 신자 돌봄뿐만 아니라 대 사회적 활동과 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못했던 모습도 여실히 바라볼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선의가 다 있고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회가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들, 사회적인 활동에 그들이 선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자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애정도 있고 뭐든지 할 각오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작하면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 이런 신자들을 인도를 잘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막히는 것 같다. 사목자가 열심히 사목을 하려는 열의가 중

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면 신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려고 한다. 사목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친교, 참여, 사명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친교도 이루어지고, 참여도 이루어지고, 사명도 이루어진다. 신자들과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다.

- 사목평의회와 같은 곳에서 무엇을 할 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흥미와 재미를 못 찾는다.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이다. 구반장들이 안 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반모임 진행하는 순서가 복잡해서 그렇다. 사회 변화, 시노드를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능력을 갖춘 봉사자가 있으면 본당 사목이 수월하고 활기가 차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지도자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자 의견

- 다른 본당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소모임이나 활동은 없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본당 내부에서조차 활동이 제약되는 이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필요성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 대체로 빈첸시오회를 통해서 본당 내의, 그리고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노력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사명임을 염두에 둘 때, 더 많은 범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본당간 사목적 교류와 교구의 지침을 준수하며 교구 내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목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 때로는 교구지침과는 무관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본당 내에서 신자들과의 식사를 못하게 한 상황에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본인의 의향대로 여러 차례 식사자리를 갖는 사목자의 모습으로 인해 신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악표양이 되기도 한다.
- 시노드 정신에 대하여 교육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모두가 함께 알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 개념마저 일부 신자들, 일부 수도자와 사제들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청년 의견

1.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며, 이에 관해 노력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내적인 부분들. 즉, 신앙심과 사랑과 같은 가치들이다. 타인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죄와 악의 성찰과 아픔에 대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을 노력하기 위해 하루를 묵상하고 타인의 잘못과 상처를 보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생활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녁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자기 전에 유튜브에서 기도를 찾아 듣는다.
- 하느님을 닮은 모습, '하느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 기도와 미사 전례에 성실히 참여하는 성실성,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가장 섬기며 사랑하는 것, 관계 배려, 의사소통, 공동선의 가치 실현, 봉사를 통해 믿음의 삶을 가지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열심히 성사와 기도를 하고 청년회 등 성당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며, 개인 일정을 잘 조율하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심이 흐려지고 의구심이 들 때도 생기는데, 이럴 때 막연한 의심에 빠지지 않고 쪽 이어나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앙은 의심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온한 마음으로 신앙을 이어나가기 위해 생활 속 작은 기도를 잊지 않고 하고 있다.

2.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나 혹은 일상생활 안에서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신앙(믿음)에 나는 순명적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입니까?

- 기둥의 역할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적이다. 힘들 때에만 의지하려고 찾게 된다.
- 선택적이다. 신앙과 별개로 모든 성경 말씀에 공감할 수 없을 때에도 있기 때문이다.
- 선택적이다. 일상에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성경과 별개로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할 것 같다.
- 선택의 시점,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은 용기를 주고 위안이 되어준다. 그리고 신앙에 순명적이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느님께 의지하고자 한다. 어떠한 선택을 하면 좋을지 하느님께 기도하며 고민하려고 한다. 그렇게 선택한 일들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명하려고 한다.
- 성당을 다님으로써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예전엔 선택적이었다면 지금은 순명적이다.
- 자신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나 일상생활 안에서 신앙은 중요한 부분은 차지하고 있다.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의 역할

을 하며, 나도 할 수 있다는 힘과 믿음을 심어주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고자 노력하게 된다.

-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은 신앙에 선택적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 모든 결정에 신앙을 의식하고 선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선까지는 넘지 말자 하는 기준을 잡아주는 것 같다. 그럼에도 그 신앙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지만 타협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선택적인 것 같다.

3. 매스컴이나 주변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 알게된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을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 나도 저렇게 하며 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갈지라도, 마음과 이상에서는 사랑과 신앙을 품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축복이다. 하느님께 감사하다.
- 내가 아니더라도 이웃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에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그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자'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역시 성당은 좋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 서로서로 도우면서 이런 따뜻해지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자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다
- 몽클하고 선함이 있음이 느껴진다.
- 그들의 모습에 주님의 빛이 보다 널리 전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며 세상은 아직 온정이 남아있어 살만하다는 생각에 기쁘다. 세상은 영웅이나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어어나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 이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기부나 봉사, 자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하여 그들처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마음 따뜻한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4.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한다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 직장생활을 할 때 직속 상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일부러 천주교인임을 숨길 때가 있다.
-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것도 있고, 타인의 천주교인에 대한 질문, 호기심, 묵주 등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많을 때가 있어 불편할 때가 있다.
-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랑스럽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지 부담스럽지는 않다.

- 아직 조금은 부담스럽다.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우면 될 일이지만 신천지나 사이비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면서 성당을 다니는 것도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같게 생각할까 숨길 때가 있다. 또 성당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착할 거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더 의식을 하며 행동하게 될 때가 많아 부담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 대부분의 청년들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는 것 같다. 또한 자랑스러운 행동이 모자라 부끄럽다고 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 자랑스럽다. 하지만 교구 내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제 식구 감싸기를 보며 언제 터질지 조마조마하고,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며, 간혹 매스컴에 종교인의 비리나 성추행, 음주운전 등을 보면 부끄럽다.

5. 본당, 가정, 직장 등등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리라 생각하십니까?

- 내 자신이 교회의 거울이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
-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해나가는 굳센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 조금 더 내 삶에 신앙이 자리 잡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나는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고 있다.
- 만약 '열심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묻는다면 '주어진 것'에 혹은 내가 '맡은 것'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보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할 것 같다.
- 우선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온 생애에 걸쳐 실천하고 결국, 하느님 안에서 사람은 모두 하나임을 잊지 않고 매일 새로 새기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종교가 단지 마음의 위안이나 휴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사실이 있다.
-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항상 품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문득문득 자기전이나 길 가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등 나를 찾아와 준다. 그에 따른 응답을 하며 (기도, 사랑의 실천 등)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한다.